

로컬리더스

군산지역 총선 막바지 과열·혼탁

군산시, 전국적 관광명소로 '우뚛'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도시로 각광 받으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주요 유류관광지에 대해 지난 3월 관광객 조사결과 7만3,982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6만2,743명보다 약 18% 증가했으며, 2016년 1/4분기에 군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22만 4,637명으로 전년도 1/4분기 19만7,147명과 대비해 약 14%가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산시 유류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135만 여명으로 이런 추세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올해는 관광객수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월 여행을 개시한 '군산-서천 광역시티투어버스'와 오는 5월 초 월명동 테디베어 전시장이 개관되면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광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후보 간 비방·고발 잇따라...유권자들 표심 향방 관심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군산지역은 후보 간 비방과 고발이 잇따르는 등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과열·혼탁해지며 김운태(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관영(국민의당)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싸고 선거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군산지역 선거운동은 남자 11만 2749명 여자 11만 327명 등 총 22만 327명으로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 당시보다 6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하루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의 우세 속에서 더민주 김운태 후보의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에 후보 간 지지를 겨차자 얼마

나 좁혀질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군산지역 총선은 지역 내 특정 정당의 독주로 인해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산지역 총선은 아예 분열로 더불어민주당 김운태 후보와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간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7전 8기의 무소속 함운경 후보의 복심과 진보개혁 성향의 정의당 조준호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선거운동, 군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채용복 후보 등도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새민금 1·2호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놓고 현역 의원인 김관영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타 후보

들과 이에 맞서 방어논리를 펴는 김 후보 간의 논리전이 방송사 토론회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새만금 관할' 문제가 군산지역 총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다소 과열된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군산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갈 후보에게 표심을 던질 것이다"면서 "과거에는 지역 뒷발질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에는 군산시를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당과 인물을 반드시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군산 대규모 행사장 주변 쓰레기로 '몸살'

버린 음식물등 방치 악취 발생...대형 쓰레기통 배치 필요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친 후 행사장 주변이 넘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한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운영한 먹거리 장터에는 20여만 명의 상춘객이 붐볐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일 개최된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도 5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이다. 해마다 펼쳐지는 벚꽃축제와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등에 대한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가 끝나고 인파

가 떠난 행사장 곳곳에 남은 것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뿐이다. 행사장 인근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뭇굴면서 쓰레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일부 관람객들과 먹거리 장터에서 먹다 남은 각종 음식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돼 악취가 진동했다.

지난 9일 밤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은파호 수공원은 일원에는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길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또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개최된 월명종합경기장 일원은 각종 전단지, 물병 등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환경미화원들은 밤늦게 까지 쓰레기 회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행사기간동안 버려진 쓰레기는 수습 톤에 달해 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된 환경미화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비처된 쓰레기통만으로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 이에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형 쓰레기박스(압플박스)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38)는 "이동식 쓰레기수거차량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고 안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지난주말 해상 사건·사고 신속 대응 처리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주말동안 총 6척의 위반선박을 검거하고 2건의 어선과 레저보트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항역무선 부두 앞 해상에서 민취한 채선박운항을 한 48톤급 인강방 어선 선장 강모(54?남)씨를 해상안전법 위반혐의(주취운항)로 검거했다.

강씨는 조업 중 술을 마시고 군산항으로 입항 중이었으며, 선박이 지그재그 운항 하는 것이 해경 레이더에 포

착되면서 검문에 나선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같은 날 오전 12시 20분께 위도 인근 작은 갯바위(배잠여)에 흥함을 채취하려 가기 위해 정원을 초과(정원 6명 → 승선원 12명)에 운항한 3.7톤급 어선척을 어선법 위반(정원초과) 혐의로 검거했다.

해상사고도 잇따랐다.

10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내항에서 정박 중이던 7.3톤급 조망 어선 1척이 침수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해경은 긴급복원 조치를 취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부안군 격포 인근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승선원 4명)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행위자는 경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 점검?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세심한 주의 당부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정곤)은 "최근 기온 상승과 비가 자주 내려 과수의 꽃이 맺히거나 개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으며, 금년 3월의 기온이 높아 개화(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재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의 주요 과수 재배면적은 2014년을 기준으로 사과 2,078ha, 배 617ha, 복숭아 808ha이고, 금년 3월 평균기온이 전주를 기준으로 7.6°C로 전년보다 0.4°C, 평년보다 1.3°C 높아 개화기가 작년보다 1~2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평균 만상일은 4월 29일로 과종별 개화가 앞당겨짐에 따라 특히 배와 복숭아의 서리 또

는 저온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상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민약 저온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꽃피기 작업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암술에만 인공수분을 시킨 다음 착과 상태에 따라 적과를 한다.

그리고 수세 안정을 위해 질소 추비를 금하고 착과 불량에 따라 도장지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유인 또는 하계전정을 실시한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만개 예상일을 기점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돌발기상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피해 상습지와 주산지를 현장 지원하며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금강 자전거길 라이딩 명소로 자리매김

군산시 금강철새 자전거길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몰리며 라이딩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15년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선정된 금강철새 자전거길은 군산과 서천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금강과 서해바다를 함께 조망하며 라이딩 할 수 있는 곳이다.

라이딩 코스에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맛집들이 모여 있고, 금강철새조망대와 금강생태습지공원이 위치해 있어 금강을 바라보며 한적한

갈대숲 길을 산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장이 있어 가까이에서 철새를 관찰하며 해질녘에는 50만 마리의 철새들이 군무를 이루는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금강철새 자전거길은 옹포관광단지까지 마지막 코스이지만 장거리 코스를 원할 경우 옹포교를 건너 공동경마구역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을 경유해 금강하구둑까지 돌아오는 40km코스를 라이딩 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함라산 임도 1km 추가 개설 추진

익산시는 함라산의 성당면 두동 편백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임도를 작년 2km 개설한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1km를 추가 개설한다.

올해 국도비 2억여원이 투입돼 신설되는 임도는 편백나무 숲과 연결되면서 편백 정보화마을, 두동교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성당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토지구, 지역주민, 용역사, 산림조합 등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예정 노선과 사업의 효용성 등의 설명을 듣고 토지구주의 협조를 부탁했다.

임도는 산림경관 등의 기반시설로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신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의 방화선, 진화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 싱크대 배수통 2~3년 짜리 찌든때와 막힘
- 스물 - 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세척액 [박스]

수익률 높여 빠른시간에 투자비용 회수

수익률 높여 빠른시간에 투자비용 회수

수익률 높여 빠른시간에 투자비용 회수